

과기정통부, '24년 R&D 예산배분조정 관련 연구중심대학 의견 청취

- KAIST, GIST, DGIST, UNI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충남대 등 11개 연구중심대학의 총장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5일(목) 코리안호텔 로얄룸(서울)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 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 연구 현장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R&D는 R&D다운 R&D, 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며, 금년 대비 10.9% 감액 편성된 '24년도 R&D 예산배분조정 결과'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누적되어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생존을 위한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그리고 젊은 과학자 육성 등 국가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는 집중투자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유홍립 총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략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며, 이는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므로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과 아울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Bottom-up 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참석한 다수의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성·도전성 중심의 연구 강화, 신진 연구자 지원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아울러, 내년도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아울러,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전략기술 중심의 체계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전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훈 (044-202-672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2-6724)